

[보도자료] 쿠팡 마켓플레이스, 나만의 온라인 쇼핑몰 ‘스토어’ 리뉴얼 오픈

2020. 4. 6.



- 판매자 편의성 및 활용도 극대화
- 스토어 이름 변경, URL 직접 설정 등 판매자 자유도 높은 개인화에 초점

2020. 4. 6 서울— 쿠팡은 마켓플레이스의 개인 온라인 쇼핑몰인 ‘스토어’를 리뉴얼 오픈한다고 밝혔다. 이번 개편을 통해 입점 판매자의 편의성과 개별 스토어의 인지도 및 접근성을 높였다.

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‘스토어 커스터마이징(개인화)’이다. 판매자가 브랜드 특성을 반영해 스토어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, 소개 문구를 설정해 고객에게 스토어의 컨셉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. 메인 상단의 대표 이미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도 있다.

쿠팡 스토어의 ‘URL 직접 설정’ 기능도 도입했다. 기존에 스토어 오픈 시 자동 부여되었던 웹주소를 판매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해, 고객이 보다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.

쿠팡은 이번 개편을 통해 판매자가 스토어의 모든 요소를 최대한 개인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 쇼핑몰로서도 손색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 업그레이드된 스토어 기능은 쿠팡 판매자센터(WING)에 접속한 뒤 프로모션관리 탭 내 ‘스토어관리’에서 확인 및 설정 가능하다. 쿠팡 스토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쿠팡 마켓플레이스 웹사이트 (<https://sellers.coupang.com/>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지난해 11월 선보인 ‘스토어’는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판매자들을 위한 서비스다. 스토어 운영 시 보통 발생하는 쇼핑 연동수수료가 없으며, 고객이 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판매수수료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. 별도 비용 없이 나만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, 쿠팡의 막대한 트래픽을 활용할 수 있어 판매자들의 반응이 뜨겁다.

티파니 곤잘레스 쿠팡 시니어 디렉터는 “판매자들이 자신의 쇼핑몰에 애착을 가지고 판매 및 매출 증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스토어 개편 작업을 진행했다”며 “앞으로도 쿠팡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를 위한 다양한 기능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